

# 하나님의 이동성과 이스라엘의 다문화 사회

정중호/계명대

## 1. 서론

‘다원주의 사회와 기독교 학문’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살펴볼 때 우선적으로 눈이 가는 것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신학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며 이동하시는 자유로운 분이셨으며,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다문화 사회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대화하신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방식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건물로 이루어져 눈에 볼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신학이 친숙하지만 성전의 원형은 이동하는 텐트 성전인 회막(성막)이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선두에서 귀환이주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였다.

광야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땅은 산간지대였으며 척박한 땅이었다.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해발 830m에 위치한 산성이었다. 산간지대였기에 처음에는 인구가 희소하였지만 이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기도 하고 목축을 겸하는 농가가 늘어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사통오달의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당연히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는 지역이었고 처음부터 이주자로 형성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이주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이주와 귀환이주가 빈번한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문화사회를 이루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신학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민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나갈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구약과 연결시켜 연구한 논문으로서는 왕대일의 “나그네(게르) - 구약신학적 이해”가 있는데 주로 ‘게르’에 집중한 연구였다.<sup>1)</sup> 그리고 강성열의 논문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정을 중심한 연구였고, 하경택의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주제를 게르와 연

1) 왕대일. “나그네(게르) -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 ( 2001 여름), 101-21.

2)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2009. 4), 5-34;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노크리>와 <게르>에 대한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9집 (2010), 61-88.

결시켜 연구한 것으로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신학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특히 다종교 상황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 II. 이스라엘의 다문화 사회

이스라엘이 자리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교류하는 통로 지역이었다. 이스라엘의 위치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중해, 아라비아 등지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교차지점으로 사람과 물자가 통과하는 사통오달의 지역이었다. 따라서 주변의 국제정세가 안정될 경우에는 국제무역에 유리한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상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제적 세력 균형이 깨어질 때는 이스라엘 지역이 강대국들이 세력다툼을 하는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강대국 군사들이 휩쓸고 지나가는 통과지역이 되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 지역과 국가들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으며, 국제사회의 변동에 따라 국내사정이 이리 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변화무쌍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평화 시기든 전쟁 시기든 이 지역은 이동성이 강한 지역이며 이주와 피난행렬과 귀환이주가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지역은 산간지대로 바위가 많은 산지였으며 강우량도 부족하였기에 목축과 농업을 겸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척박한 땅이었기에 13세기까지는 인구밀도가 극히 낮은 지역이었다. 고고학 조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이 산간지대에 주전 13세기에는 25개 정도의 부락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정세가 혼란한 시대인 주전 12세기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300여개의 부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sup> 주로 100-300명 규모의 부락이었기에 총 인구는 75,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러한 규모는 주전 1207년 경의 기록인 메르넵타 스텔라(Merneptah Stela)의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비문에 의하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팔레스타인 중앙 산간지대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주변에서 이 척박한 산간지대로 이주한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해양쪽속이 침입한 지중해 연안에서 밀려 산간지대로 피난오거나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무주공산과 같은 산간지대로 숨어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sup>5)</sup> 그리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면서 산지를 개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발달하

3) William Dever, “이스라엘과 가나안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Hershel Shanks 등 편집,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71-72.

4) J.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378. 이하 약어 ANET 로 표기함. 메르넵타의 전쟁은 이 비문이 기록되기 5년 전인 주전 1212년에 일어났다. Hershel Shanks,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 Hershel Shanks 등 편집,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33.

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새로운 농토를 찾아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이주물결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거쳐 이 산간지대로 들어온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이주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였는데 도중에 하란에 정착하였다(창 11:31).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와 이별하고 아버지의 이주계획을 끝까지 수행하여 가나안 땅에 이주인으로 들어왔다. 족장 가운데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사건 때문에 밤중에 도망하여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주자의 신세로 살게 되었다. 그 후 야곱은 하란에서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이주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주역사는 계속되었는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던 시대에 기근을 만난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집트 왕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였다. 그 후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이주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출애굽과 광야시절의 사건을 귀중히 여겨 장막절과 유월절 등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 사건을 회상하며 기념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이주와 귀환 이주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절기 때마다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 특히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시리아) 사람”이라 부르면서 조상 때부터 이주자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신 26:5-9)

가뭄과 전란이 잦은 이스라엘 지역 특성상 이를 피해 주변 나라들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시 돌아오는 귀환 이주도 이어졌다. 룻기에는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고(룻 1장), 열왕기하에는 수넬여인이 기근을 피해 블레셋에 이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었다(왕하 8:1-6). 아브라함(창 21:34)과 이삭(창 26:1-33)도 기근을 만나 블레셋으로 이주했다가 귀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윗도 블레셋에 갔는데 도망자의 신세로 블레셋에 가서 1년 4개월 거주한 후(삼상 27:3-7) 헤브론으로 귀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다윗과 함께 용병으로 이주해 온 가드 사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등 600여명도 있었는데 그들이

---

5) J. Maxwell Miller and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6), 77-79.

다윗 친위대를 형성하였으며 다윗의 핵심군사력을 이루고 있었다(삼상 15:18-21).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 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강제 이주당해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 주전 732-732년 경 앗수르 왕 티글랏빌레셀이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왕하 15:29). 앗수르 왕 사르곤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722년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에서 강제 추방하여 앗수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인원이 27,290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다(ANET, 284-285). 이들은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 그리고 메대의 여러 도시들에 강제 이주 당했다(왕하 17:6).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앗수르의 다른 점령 지역에서 강제 추방된 이주민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바벨론, 쿠타, 아바, 하맛, 스파르바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왕하 17:24).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인 주전 701년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그 때 포로로 200,150명을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ANET, 288).

이스라엘과 유다를 직접 침공하지 않았지만 강대국의 군대가 지나가면서 이주민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앗수르 왕 에살하돈의 이집트 원정 때(주전 674년 패전, 주전 671년 승전) 참여했던 외국인들이(ANET, 293, 302. ABC, 84)<sup>6)</sup> 베냐민 지역에 이주민으로 정착한 경우가 있었다.<sup>7)</sup>이들이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 때 소위 '베냐민의 대적자'(스 4:1-3)로 불려졌다. 또한 앗수르 왕 아수르바니팔 왕의 이집트 침공(주전 664년) 때도 이러한 이주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ANET, 295).

그리고 주전 586년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3차에 걸쳐 4,600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렘 52:30).<sup>8)</sup> 그 후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하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주전 539년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 때 귀환한 인원이 약 5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스 2:64-67). 그러나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이기보다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외국에 정착하여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경우들도 많은데 그 중에 이사야에 나타난 경우들을 보면,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사 11:11), 그리고 이집트의 태양성을 비롯한 다섯 성읍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사 19:18). 또 다른 경우는 나일강 상류의 점인 엘레판틴에 이주하여 살았던 경우인데 엘레판틴에는 야웨 성전도 있었다(ANET, 491-492, 548-549).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남북 간의 전투에서, 혹은 피난민으로서 이주한 경우도 있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때 요아스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포로를 잡아갔다(왕하 14:8-14).

6) A. K. Grayson, *Assyrian and Babylonian Chronicles* (Locust Valley, NY: J. J. Augustin, 1975), 84. 이하 약어 ABC 로 표기함.

7) 김지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스 4:1)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0집 (2001), 92-97.

8) 바벨론에 강제 이주당한 수가 열왕기하에도 나타나지만(왕하 24:12-16),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숫자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렘 52:28-30). 정중호,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55.

예언자 가운데도 이주민 예언자가 있었는데 디셉사람 엘리야와 여예언자 홀다를 들 수 있다. 엘리야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왕상 17:1)로 소개하였는데 우거한다는 것은 이주자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즉 다른 지역인 디셉에서 길르앗에 이주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이주자라는 뜻이다. 특히 ‘우거하는 자’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샤브’인데 이주자 가운데서도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예언자 홀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다(왕하 22:14). 둘째 구역은 예루살렘의 서쪽 구역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확장된 구역이다. 둘째 구역은 확장된 구역으로 북왕국의 멸망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을 때 주로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구역이었다. 따라서 홀다가 이 구역에 정착한 것을 보면 북쪽 출신의 이주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III.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신학

#### 1. 하나님의 이동성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경우는 광야에서였다.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선두에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막(회막)은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는 텐트 성전으로서 이동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회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회막이라는 제한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며 자유로우시고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는 뜻에서 야웨의 궤 위에 날개달린 그룹을 조각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막에 내려오실 때는 그 날개달린 그룹에 좌정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날개는 이동의 상징이며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에서는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시 18:10)”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회막이 있다.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세워진 텐트 성전인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회막과는 차이가 있기에 ‘외부 회막’이라 부른다(출 33:7-11; 민 11:14-17, 24-30; 12:4-7; 신 31:14-15).<sup>9)</sup> 이 회막은 ‘내부 회막’보다 먼저 지어졌으며, 특이한 것은 진영 바깥에 있는 이 외부 회막에는 야웨의 궤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다는 점이다.<sup>10)</sup> 외부 회막은 텐트 하나가 전부인 셈이다. 그리고 누구나 제한 없이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 텐트 회막에 내려오시는데 회막 문에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내려오신다(출 33:9; 민 11:25; 12:5).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텐트 회막 안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회막 바깥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신분과 인종과 남녀의 차별 없이 심지어 죄인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9) B. Sommer, "Conflicting Construction of Divine Presence in The Priestly Tabernacle," *BI* 9(2001), 45.

10) ‘내부 회막’은 출애굽기 40장에 가서야 완성되는데, ‘외부 회막’은 출애굽기 33장에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외부 회막은 텐트 뿐이기에 쉽게 세울 수 있는 회막이기도 하다.

11) V. Turner, "The Center out There: The Pilgrim Goal," *History of Religions* 12(1973),

하나님은 이 외부 회막에 자유롭게 오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오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내부 회막이나 외부 회막에서 공통되는 점은 회막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거나 내려오실 수도 있고 회막을 떠나실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회막에 매여 있지 않으며 그 어떤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야웨의 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 야웨의 궤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먼저 번역 용어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법궤'라는 용어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이다. 개역개정에도 '그 궤'라는 의미의 '하아론'을 단 한번만 '법궤'라는 용어로 번역했을 뿐이다(레 16:2). 구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야웨의 궤(아론 야웨)'(82회), '하나님의 궤(아론 하엘로힘)'(37회), '언약궤(아론 브리트)'(40회) 등이며 그 외 '증거궤(아론 하에두트),' '궤(아론)'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었다.<sup>12)</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야웨의 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회막이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출 40:34-35) 이미 야웨의 궤가 회막에 안치된다(출 40:20-21).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왕상 8:10-11) 야웨의 궤가 먼저 안치된다(왕상 8:3-5). 그리고 야웨의 궤는 어이없게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 빼앗기는 무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야웨의 궤와 하나님의 임재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전의 기원이 되는 회막은 이동하는 성소였다. 따라서 회막 전승은 특정지역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만 거룩하다는 소위 정착민의 성전 중심 신학과는 거리가 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막이 이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인 이집트에 야웨 성전인 엘레판틴 성전이 있었으며 바벨론에도 야웨 성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sup>13)</sup>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성이 오히려 부각된 부분은 성전건축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다윗이 소원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피력하였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와 언약궤가 장막에 있다고 하면서 성전을 지을 계획을 말하자 나단 선지자는 좋은 계획이라 여기며 동의하였다.<sup>14)</sup>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달랐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191-230.

12) '야웨의 궤'라는 표현은 82회 나타나는데 주로 신명기사가와 역대기에 나타나며 해설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언약궤'라는 표현은 40회 나타난다. C. L. Seow, "Ark of the covenant," *ADB*. vol.1, 386-387.

13) C. C. Torrey, *Ezra Studie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06) 316. L. E. Browne, "A Jewish Sanctuary in Babylonia," *JTS* 17(1916), 400-401; P. R. Ackroyd, *Israel under Babylon and Pers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21; M. Smith, *Palestinian Parties and Politics the Shaped the Old Testa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90-91.

14) G. A. Ahlström은 나단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의 대변인이었으리라 짐작하였다. G. W. Ahlström, "Der Prophet Nathan und der Templebau," *VT* 11 (1961), 114-121.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웨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삼하 7:5-7)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히브리어 성경(MT)에서는 “내가...집을 지으려하느냐?”라는 수사학적 질문형태로 되어 있지만 70인역(LXX)과 시리아어역인 페쉬타에는 “너는...집을 지어서는 안된다”라는 서술문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70인역과 페쉬타에서는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역대기상에서와 같이 직설적으로 의미를 전달 하고자 의역한 것으로 짐작된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대상 17:4).<sup>15)</sup>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6절에 나타나는 데,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장막 안에서 다녔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축물인 성전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정지된 건물 안에 계시도록 한다는 사실이 옳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왕위 계승자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하셨다(삼하 7:13). 왕조를 창건한 다윗의 경우, 처음으로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의 경우 모두 왕권강화를 위해 성전건축이 필요했고 그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던 것이다. 성전은 왕권강화 뿐 만 아니라 세금수납과 관리라는 행정적인 기능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치 차원에서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다.<sup>16)</sup>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에 완공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칭찬하시기보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왕조를 지켜주겠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라는 경고였다(열왕기상 9:3-9). 성전을 봉헌한 직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도 하나님에 의해 내던져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와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그 예를 실로 성소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실로 성소가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실로 성소가 미리 보여 준 것이라 하였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

15) B. H. Kelly, *Septuagint Translators of I and II Samuel 1:1-11:1*,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48), 174.

16) J. Shaper, "The Jerusalem Temple as an instrument of the Achaemenid fiscal administration," *VT* 45 (1995), 533.

라...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렘 7:12-14).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신다면 성전은 다만 하나의 건축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에스겔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겔 11:22-23). 그 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성전은 불타버렸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건축을 거부당했다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기에 성전건축을 할 때 신중을 기했다. 우선 성전건축 시기를 출애굽 후 480년에 시작하여 출애굽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였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열왕기상 6장 첫 머리에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하고, 언약궤를 성전을 들일 때(왕상 8:9),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연설할 때(왕상 8:16, 21), 봉헌 기도를 마감할 때(왕상 8:53), 그리고 봉헌식 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왕상 9:9)에 계속해서 출애굽과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출애굽의 기억을 반복해서 회상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이다.

성전건축 기사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또 다른 내용은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에 관한 것이다. 두 개의 그룹을 동일하게 조각하여 아위의 궤 위에 설치하였는데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다. 그룹의 크기는 10규빗(4.5m)이고, 날개 길이는 각각 5규빗(2.25m)였다. 그룹의 날개는 퍼져 있었는데, 지성소의 너비가 20규빗이니 한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옆의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을 만큼 큰 그룹이었다. 두 그룹을 동일한 형태로 만들고 좌우 균형을 맞추어 배치하였다는 점은 성전 설계에 있어서 좌우 균형을 중요시 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왕상 6:23-28). 열왕기하 6장 23절에 그룹을 만들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그룹 날개 아래 아위의 궤를 메어 들였다는 기록(왕상 8:6)을 보면 이 그룹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새롭게 만든 그룹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룹의 모습은 지성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성전 곳곳에 문양으로 새겨 그룹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에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룹 문양과 종려나무 문양, 그리고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성전의 벽과 문에도 그리고 성전 뜰의 늦 받침 수레(물두멍 운반 수레)에도 새겨졌다(왕상 6:29-35; 7:27-29, 34-36).

왜 이렇게 그룹을 크게 만들고, 온 성전 벽과 문에, 그리고 성전 뜰의 성전기구에 이르기까지 그룹 문양을 새겨 놓았는가? 시편에 "(여호와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시 18:10)라고 찬양하듯이 그룹은 날개 달린 형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을 상징한다. 성전이라는 건물에 안주할 수 없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날개달린 그룹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다. 따라서 이동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 성전 벽에, 문에, 그리고 물두멍을 받치는 수레에 이르기 까지 그룹의 문양을 새겨놓은 것이다. 마치 성전에 날개라도 달린 듯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 문양을 새긴 것이다.

또한 제사장이 야웨의 궤를 뭇 수 있도록 야웨의 궤에는 두 개의 채가 있었다. 지성소에 안치한 후 그 채가 소용없다고 여겨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채는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열왕기하 8:8)라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이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지성소에 있는 야웨의 궤는 언제든지 메고 이동할 수 있는 야웨의 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한 후에는 솔로몬은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 ‘구름가운데 계신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불렀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 ‘캄캄한 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라펠’은 ‘짙은 구름’ 혹은 ‘짙은 어두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런데 ‘아라펠’은 성경 곳곳에서 ‘구름과 흑암’이라는 구절에 나타난다(신 4:11; 5:22; 시 97:2; 욥 2:2; 욥 1:15). 따라서 ‘캄캄한 데’라고 번역할지라도 그 의미는 ‘짙은 구름 가운데’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솔로몬의 말은 캄캄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신다는 의미인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실 수 없는 분이요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을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모두가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라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연설이 시작된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열왕기하 8장 22-53절에 나타나는데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지성소를 향하지 않고 회중과 마주서서 제단 앞에서 기도하였다. 제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다. 따라서 성전을 완공하였음에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였다.

솔로몬은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보다 하늘에서 항상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임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말하면서 자유로우신 하나님과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였다. 성전에는 마치 집의 문패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혹은 떠나실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성전이 하늘로 통하는 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야곱이 밤중에 도망하여 하란으로 가고자 할 때 벳엘에서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층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말하기를 “이곳이여...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였다(창 28:17). 솔로몬은 왕이나 제사장 뿐 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어디서든지 이 제단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다고 할 때는 오직 대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제단의 제물을 받으신다고 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특히 기도할 때는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 없고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이

미 만인제사장설의 짝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자유롭게 이동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성전건축을 진행시킨 것이다. 성전을 완공했음에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보다 제단에서 제물을 받으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더 강조한 태도를 통해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하나님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마 6:9)

그러나 200여년이 지난 후 광경을 살펴보면 제단보다 지성소의 그룹을 강조하는 신학이 우세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은 유다 왕 히스기야(주전 727-699년)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앗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앗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 첫 머리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였다(왕하 19:15). 비록 그룹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건물로 세워진 성전 중심의 신학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신이 신전에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신이며 정착민의 신이다. 대부분의 신들은 나무나 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긴다. 이 신들은 움직이지 않으며 오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주민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곳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신은 이미 그들의 신일 수 없다. 이주민과 상관없는 신이다. 때로는 이주민이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상을 들고 새로운 이주지역에 안치하여 신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이주민의 신이 아니라 정착민의 신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경우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주민이 이동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동하시며 이주민의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으시고 이주민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을 때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 이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겔 1:1). 바벨론 이주민이었던 에스겔은 지성소 법궤와 그룹들의 모습을 날개도 있고 바퀴도 달린 생물들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다(겔 1:4-25). 예루살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성전중심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잡혀와서 이주민으로 살면서 바벨론 땅에서 하늘이 열리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따라서 성전중심의 신학에서 핵심이 되는 지성소의 법궤와 그룹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신학을 보여주었다. 법궤와 그룹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법궤에는 바퀴가 달려 움직일 수 있고 그룹은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모습을 통해 성전중심신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 2. 하나님 앞의 이주자

이주자라는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주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땅의 소유문제가 그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자라 고백하였다. 레위기와 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sup>17)</sup>

땅을 아주 팔아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야웨)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너  
희는 나의 이주자(게르)요 우거하는 자(토샤브)일 뿐이다(레 25:23).

나는 주께 이주자(게르)가 되고 우거하는 자(토샤브)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같은  
니이다(시 39:12).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땅의 소유자라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왕이  
라 하더라도 이주자임을 고백하도록 하였다. 다만 하나님께서 분배해주시는 땅을 경작하고  
관리할 뿐이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산과 물질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경영하고 관  
리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주자 신학이다.

이주자(게르)와 동일한 어근인 단어 가운데 므고르(מגור)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게  
르로 살아가는 장소’ 혹은 ‘거주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성경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이주자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줄 때도 그 땅을 ‘이주자의 땅’이라 불렀다(창 17:8). 야곱은 이집트 왕 앞에서 자  
신의 평생 길이 험악하다고 이야기 할 때 자신의 평생 살아온 날들을 ‘나의 이주자의 세  
월’이라고 표현하였다(창 47:9).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생을 이주자의 삶이라는 표현은  
시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나의 이주자의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  
다”(시 119:54).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주자였는데 세월이 지나 정착민이 되었어도 여  
전히 이주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땅의 소유자라는 이주자 신학  
을 창안하여 이 땅의 권력자나 개인이나 단체가 땅을 독점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주자의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귀환이주자라는 정체성을 특히 강조하였  
다. 이주자와 귀환이주자의 차이는 땅에 대한 권리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주자는 땅에 대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귀환이주자는 옛날에 그 땅에 살다가 이주한 후 다시 돌아오  
는 경우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으므로 가나안 땅의 사용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 후손이  
기근을 만나 요셉이 총리대신이 되어 있는 이집트에 이주민으로 살게 되었다. 그 후 출애  
굽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귀환이주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경우 귀환이주자인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권리가 가나안 족속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주장하였  
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다.

17) 역대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난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게르와 토  
샤브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대상 29:15)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점령했을 뿐이었으며 제비 뽑은 것은 지파별로 점령한 지역을 각 가족대로 나누기 위해 제비 뽑았던 것이다(수 18:2-6).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물이나 역사를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여호수아에서는 모든 땅이 점령된 것처럼 이야기 하였지만 사사기에 와보면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성읍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중요한 성읍들은 대부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다(삿 1:27-36). 예루살렘의 경우 다윗이 점령하였는데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으며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고스란히 인수하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출애굽한 그룹의 퍼센티지가 작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작은 숫자의 그룹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귀환이주자였기 때문이었다. 이주자들이 모인 다문화사회인 이스라엘에서 귀환이주자인 출애굽 그룹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출애굽 그룹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확대해 나아갔다. 마치 가나안 족속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룹인양 정체성을 만들어갔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귀환이주자로서 땅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수기마다 절기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한 귀환이주자임을 고백하게 하고 절기의 의미를 출애굽과 연관시켜 지키도록 하였다. 모두 추수절기임에도 봄 추수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도록 하고, 가을 추수 때는 장막절을 지켜 광야생활을 회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귀환이주자 정체성을 출애굽과 연관시킴으로 가나안 족속과 다양한 이주민을 포함하는 다문화사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웨종교인으로 변모 시킨 것이다. 동시에 귀환이주자의 정체성을 통해 이주민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소위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중산층이 되도록 인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통합해 나아갔던 것이다.

### 3. 복을 나누는 사명자의 신학

다문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다종교 상황을 만든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다문화 사회였기에 다종교 사회였다. 왕실을 비롯해서 사회의 지도층이 야웨 하나님을 섬겼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다양한 종교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비롯해서 하늘 여신을 섬기는 종교 등 다양한 민간종교와 외래종교가 병존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주민의 경우에 포용정책을 취하면서 야웨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이주민이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비록 이주민이 야웨 종교인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주민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였다. 레위기 19장에는 이주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이주민 생활을 하는 이주자를 본토인같이 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주자로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웨다. (레 19:34. 필자 사역)

이주자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발전시킨 말씀이다.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34절에서는 이주자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혹은 이동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머물러 함께 살아가는 경우에도 그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주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쉽게 약탈당할 수 있고 착취당할 수 있는 취약한 이주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sup>18)</sup> 특히 이주자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주민 생활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주자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현재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자들을 보호하며 돌보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날 이집트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이주자들을 새롭게 구출시켜 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삼인칭 단수이기에 개개인임을 알 수 있다. 국가나 성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지금 각 개인이 직접 나서서 이주자를 사랑하라는 것이다.<sup>19)</sup>

제사장 신학에도 거룩성을 확대하여 이주민을 위한 신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제사장신학에서 주로 강조되고 있는데 초기의 제사장 신학(P-제사장 자료)은 거룩성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회막(성막)을 지켜 부정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후기의 제사장 신학(H-성결법전)은 회막 뿐 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이 거룩하다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온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거룩’을 역동적으로 보는 후기 제사장들은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다고 선언했을 때 그 땅 안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이주민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신명기와 출애굽기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신 7:6; 14:2; 출 19:6). 따라서 이주민에게도 이스라엘 기존 정착민과 동일하게 종교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동일하게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주민이 잘못알고 거룩한 땅을 오염시켰을 때 모든 백성이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주민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한 나라들인 이집트와 앗수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사 19:25)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국인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개의치 않고 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20)</sup>

18) J. Milgrom, “The Alien in Your Midst,” *Bible Review* (1995/12) 18, 48; Idem, “The Most Basic law in the Bible,” *Bible Review* (1995/8) 17, 48.

19) 예수님은 이주민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은 자’ 즉 누구든지 약한 사람이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마 22:39-40; 막 12:31; 눅 10:25-27).

하나님이 세계의 통치자로서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민족들을 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외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언자들이 외국(열방)에 대해 심판 예언을 할 때 주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기준을 들면서 형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모스에도 외국에 대한 심판예언이 나타나는데 두로의 경우 사람을 노예로 매매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면서 형벌을 내린다고 하였다(암 1:9). 외국에 대해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린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기준이 달라진다. 오직 야웨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호신을 섬기고 야웨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았다.

시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자신이 돌아가면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림몬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행동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이 때 엘리사는 그 행동을 금지하지 않았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허용하는 태도를 보였다(왕하 5:18-19). 이처럼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엘리사도 허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타종교인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비판하지 않았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들이 섬긴 신을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신들이 선택해서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만을 섬기라고 하셨고 가르침인 율법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직 야웨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기준을 달리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만민에게 복을 나누라고 하셨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의 만이처럼 이스라엘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온 세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복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회가 다문화 사회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대화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이주민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신학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중해, 아라비아 등지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교차지점으로 사람과 물자가 통과하는 사통오달의 지역이었

20) Sawyer, John F. A., "Blessed be my people Egypt (Isaiah 19.25): the context and meaning of a remarkable passage," *A Word in Season: Essays in Honour of William McKane*. J. D. Martin and P. R. Davies eds., (Sheffield: JSOT Press, 1986), 57-71.

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주자가 쉽게 몰려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사회는 이주자의 정체성을 공유한 다문화사회였다.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이 이주민이었으며, 출애굽 사건과 페르시아에서 돌아 온 사건들은 귀환 이주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포로와 이주와 귀환이주가 계속되어 왔다.

이스라엘의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신학으로 첫째, 하나님의 이동성을 들 수 있다. 성전의 기원이 되는 회막은 이주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성소였으며 회막 전승에는 내부회막 전승과 외부회막 전승이 있었다. 따라서 회막 전승은 특정지역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만 거룩하다는 소위 정착민의 성전 중심 신학과는 거리가 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막이 이동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동의 상징인 날개 달린 그룹을 크게 만들고, 온 성전 벽과 문에, 그리고 성전 뜰에 물두멍을 받치는 수레에 이르기 까지 그룹 문양을 새겨 놓았다. 마치 성전에 날개라도 달린 듯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 문양을 새긴 것이다.

둘째, 이주자 신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자라 고백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이주자이지만 리더십은 귀환이주자에게로 집중된다. 왜냐하면 귀환이주자는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출애굽 그룹은 귀환이주자였기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출애굽 그룹에 포함시켜 다문화사회를 통합하였다.

셋째, 복을 나누는 사명자의 신학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만민에게 복을 나누라고 하셨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야웨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지만, 외국의 타종교인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비판하지 않으셨다. 기준을 달리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종교인과 대화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2009. 4), 5-34.
- 김 지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스 4:1)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0집 (2001), 85-101.
- 왕대일, “나그네(게르) -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 ( 2001 여름), 101-121.
-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3권 1호(2004), 511-525.
- , “‘귀환이주’가 구약에서 강조된 이유,” **구약논단** 통권 39집 (2011), 134-154.
- ,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노크리>와 <게르>에 대한이해

- 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9집 (2010), 61-88.
- Ackroyd, P. R. **Israel under Babylon and Pers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Ahlström, G. W. "Der Prophet Nathan und der Templebau," *VT* 11 (1961) 114-121.
- Browne, L. E. "A Jewish Sanctuary in Babylonia," *JTS* 17(1916) 400-401.
- Dever, William "이스라엘과 가나안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Hershel Shanks 등 편집,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 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49-121.
- Grayson, A. K. *Assyrian and Babylonian Chronicles* (Locust Valley, NY: J. J. Augustin, 1975).
- Kelly, B. H. "Septuagint Translators of I and II Samuel 1:1-11:1,"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48).
- Miller, J. Maxwell and Hayes, John H.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6).
- Milgrom, J. "The Alien in Your Midst," *Bible Review* (1995/12) 18, 48.
- , "The Most Basic law in the Bible," *Bible Review* (1995/8) 17, 48.
- Pritchard, J.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Sawyer, John F. A., "Blessed be my people Egypt (Isaiah 19.25): the context and meaning of a remarkable passage," *A Word in Season: Essays in Honour of William McKane*. J. D. Martin and P. R. Davies eds., (Sheffield: JSOT Press, 1986), 57-71.
- Seow, C. L. "Ark of the covenant," *ADB*. vol.1, 386-393.
- Shanks, Hershel,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 Hershel Shanks 등 편집,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 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1-48.
- Shaper, J. "The Jerusalem Temple as an instrument of the Achaemenid fiscal administration," *VT* 45 (1995) 528-539.
- Smith, M. *Palestinian Parties and Politics the Shaped the Old Testa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 Sommer, B. "Conflicting Construction of Divine Presence in The Priestly Tabernacle," *BI* 9(2001), 41-63.
- Spina, F. A. "Israelites as geri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n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dited by Carol L. Meyers and M. O'Connor (Philadelphia: ASOR, 1983) 323-335.
- Turner, V. "The Center out There: The Pilgrim Goal," *History of Religions*



12(1973), 191-230.

Torrey, C. C. *Ezra Studie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06).

## “하나님의 이동성과 이스라엘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평 논평자: 허성식

최근 선교학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들 중에는 “이주” (migration)과 “디아스포라” (diaspora), “다문화 사회” (multi-cultural society)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정교수님의 논문은 구약학자로서 이런 주제들을 성경 속에서, 특히 구약 가운데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가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신학에 성경에 담겨 있으며,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서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방식을 그 사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연구 자료들과 저자의 성경 연구와 묵상을 통해 잘 논증하고 있다. 특히, 몇 가지 구약 용어들이나 히브리어 단어들에 대한 저자의 해설은 본 논문의 주제인 “하나님의 이동성과 이스라엘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보다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구약에 대한 흥미를 돋우어준다는 점에서 크게 유익하다 하겠다.

2장 “이스라엘과 다문화사회”에서 저자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은 “상인”이라는 뜻을 가지며, 이 지역은 평화시기도 전쟁 시기도 이동성 강한 지역이며 이주와 피난 행렬과 귀환이 주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임을 고고학적인 자료들과 성경적 근거들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 롯, 다윗 시대, 포로기 시대 모두 이런 이동성이 강한 가나안 지역의 성격을 담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결론에서 제시한 엘리야와 홀다 또한 이주자로서 살았다는 저자의 해설은 본고의 주장에 대한 탄탄한 성경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저자는 서론에서 이전 연구물들을 언급하면서 “신학” 부재와 특히 다종교 상황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미진한 형편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의 3장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신학”에서 저자는 세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열거하면서 저자 나름의 신학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이동성, 하나님 앞의 이주자, 복을 나누는 사명자의 신학. 먼저, 하나님의 이동성 신학 부분에서 저자는 외부 회막이나 “야웨의 궤”의 용도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이동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당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고정된 성전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건축된 성전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증거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솔로몬 성전 건축 시,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했지만, 이 후 세월이 흘러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건물로 세워진 성전 중심 신학으로 변질되었다가, 이 후 다시 포로기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이 다시 이동하는 성전의 모습임을 설명한 부분은 이 논문에서 가장 탁월하게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학 주제인 “하나님 앞의 이주자”에서 저자는 아브라함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이주자의 삶을 살았음을 설명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숫자에 있어서 작은 규모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러한 작은 숫자의 그룹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귀환이주자였기 때문이었다. 이주자들이 모인 다문화사회인 이스라엘에서 귀환이주자인 출애굽 그룹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출애굽 그룹이라는 정체성을 점차 확대해 나아갔다” (12 쪽)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다문화사회인 이스라엘을 다른 두 개의 그룹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쪽 아래, “이러한 귀환이주자 정체성을 출애굽과 연관시킴으로 가나안 족속과 다양한 이주민을 포함하는 다문화사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웨종교인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라고 표현), 본 논평자는 이 설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렇게 다른 두 그룹이 이스라엘 안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보다 자세한 학문적, 성경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의 2장 전체와 3장 첫 부분 “하나님의 이동성” 부분에서와는 달리, “하나님 앞의 이주자”와 그 다음 논의되는 “복을 나누는 사명자의 신학”은 충분한 성경적 연구와 묵상, 그리고 신학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저자의 신학적인 관점이 지나치게 앞선 느낌을 받는다. 특히 “복을 나누는 사명자의 신학”은 과연 성경이 그런 신학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저자는 처음부터 “다문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다종교 상황을 만든다”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세계의 통치자로서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민족들을 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14쪽)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스라엘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온 세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복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고의 결론을 맺고 있다. 정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종교를 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자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자가 다른 이전 연구 결과와는 차별되게 본고에서는 신학을 말하고자 한다는 서두의 말은 맞는 말인 것 같다. 하지만, 신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바로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본 논평자는 본고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야웨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지만, 외국의 타종교인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비판하지 않으셨다. 기준을 달리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종교인과 대화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신 것이다” 에 동의하기 어렵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타종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단순하게 신학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점에서, 저자가 하나님의 이동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에서 멈추어 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